

09 남양주시 다산한강그린어린이집 가을 나들이를 떠나요



놀이반 소개

만2세반으로 경험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개월 수가 빠르고 위에 형제가 있는 영아들이 많다. 그래서 언어의 발달이 빠르고 또래와의 놀이 경험이 많아 놀이 시 상호작용이 잘 되는 특징이 있다.

놀이의 시작

가을을 맞아 부모참여로 이루어진 소풍 행사를 경험한 후 가정연계 활동으로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를 하였다. 가정에서는 가을소풍 이야기를 하며 액자 만들기를 하고 교실에는 소풍날 찍었던 사진을 전시하였다. 교실에 게시한 사진을 친구들과 함께 보며 가을소풍에 관심도가 높아지며 언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등을 이야기하며 경험 놀이가 시작되었다.



놀이의 과정

- 소풍을 가요

소풍에 가서 했던 것들을 연상하며 교실에 비치된 돛자리를 가방에 넣는다. 교사가 지원한 다양한 도시락통을 관찰하고 마음에 드는 도시락통을 골라 음식 모형을 골고루 담는다. 음식 모형을 담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어 메고 교실을 돌아다니다 자리를 잡고 돛자리를 꺼내 펴고 음식을 차려 먹으며 놀이한다.



- 소풍 즐기기

영아가 “우리 게임도 했잖아, 모두 모이세요.”라고 하며 소풍 갔을 때 놀이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음악을 틀어주세요.”라고 해 교사가 음원을 지원해 주었다. 동요 ‘그대로 멈춰라!’에 맞춰 동작을 하며 친구들과 놀이한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영아가 악기 탬버린을 트라이앵글 체로 치며 연주하기 시작하니 다른 영아들도 마음에 드는 악기를 골라 연주하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놀이 한다.



- 지역사회연계

가을이 되어 소풍을 경험한 영아들이 교실에서 김밥을 싸고 소풍에 필요한 용품을 스스로 생각해 가방에 담아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사회연계로 원 주변으로 가 소풍 놀이를 확장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연계로 가정에서 물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소풍 가방을 제공하여 소풍 갈 준비를 스스로 해 보고 원 주변으로 가을소풍을 나가 보았다. 영아들이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돛자리를 깔고 준비해간 물건들을 꺼내 놀이할 때 영아들에게 공간확보가 되어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었다. 스스로 준비해 간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고 돌아올 때도 스스로 정리하여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다.



- 김밥을 말아요

소풍을 준비하던 영아가 교실 역할영역에 있던 행주를 가져와 돌돌 말아 보이며 “선생님 제가 김밥 싸줄게요.”라고 하며 완성된 김밥을 도시락통에 넣어 교사에게 먹어보라고 주었다. 교사가 김밥만들기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검정펄트지, 흰색 행주, EVA막대를 이용해 ‘김밥 만들기’교구를 준비해 주었다. 그랬더니 김밥 만들기를 하며 흰색 행주를 밖으로 말아 누드김밥, 검정펄트지를 이어 대왕 김밥을 만들고 EVA막대를 가위로 잘라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며 놀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 자동차를 굴려요

김밥을 말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해 소풍에서 도시락을 먹는 놀이를 하는 영아들에게 캠핑 테이블을 제공하였다. 테이블을 펴고 접는 과정에서 비탈 모양이 생기니 자동차를 가져와 굴려보며 놀이한다. 다리를 한쪽만 펴 비탈을 만들기도 하고 평평하게 만들기도 하며 자동차를 굴리며 놀이한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영아들의 즐거운 소풍을 생각할 수 있도록 교실에 소풍 때 찍은 사진을 게시하니 음식을 차려 돛자리를 펴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다양한 도시락통 피크닉가방 등을 제공.
- 놀이를 시작하며 햇볕이 뜨겁다고 표현하는 영아에게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물건 모자 등을 제공.
- 김밥을 만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행주를 이용해 김밥을 말아 모방 놀이하는 영아들에게 펠트지, EVA 막대 등을 이용해 영아들이 실제로 김밥을 말아 도시락을 싸고 소풍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잇감을 만들어 제공.

· 인적 자원

- 영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며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놀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영아들이 놀이를 확장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 함께 놀이를 참여하며 적절한 언어적 표현 지원.
- 영아들의 요구사항을 안전을 고려하여 최대한 허용함.



참여 소감

놀이의 변화

- 컨설팅 전**
- 블록이 담겨있는 바구니가 불투명하고 높이가 높아 교구장에 정리 시 안에 블록이 잘 보이지 않아 놀이의 흥미를 떨어트리는데 단점이 있었다.
 - 영아들이 주로 놀이하는 쌓기 영역이 화장실 쪽에 배치되어 있고 책상이 놓여 있어 놀이공간 확보가 되지 않아 영아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교사의 변화

- 익숙한 공간이어서 놀잇감이 배치 형태나 화장실 앞놀이 영역 배치가 영아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지 느끼지 못했다.
- 상호작용 시 놀이 방향을 제시할 때 답이 정해진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영유아의 변화

- 계획된 놀이나 놀잇감에만 집중하여 영아들이 놀잇감으로 다루는 일이 많아 놀이의 흐름이 끊겨방해가 되었다.
- 같은 놀잇감으로 반복된 놀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놀이 시간이 짧았다.
- 놀이 시 혼자 놀이를 중시하고 함께 놀이할 경우가 있더라도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대화가 단조로웠다.

컨설팅 후

- 놀잇감 바구니를 투명으로 바꿔 주니 보이는 놀잇감에 관심이 높아져 놀이 시 놀잇감 활용도가 다양해졌으며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는 놀잇감에 관심을 보이며 다루는 일이 적어지고 놀잇감을 스스로 찾아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공간확보의 중요성을 알고 영아들이 놀이할 때 방해 요소를 줄여 놀이의 흐름이 끊기거나 단절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놀이가 확장되어 놀이시간이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교사가 익숙함에 느끼지 못해 영아들의 놀이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을 항상 살피며 찾아 바로 바꿔 주게 되었다.
- 교사의 말의 습관을 생각하게 되어 교사의 언어나 표정으로 영아들의 놀이가 단절되지 않도록 신경 쓰게 되었다.
-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영아들에게 대부분을 허용하게 되었다.

- 영아들이 주도하여 놀잇감을 선택하여 서로 의견을 내 만들기를 하고 함께 놀이하는 연합놀이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 영아들에게 놀이 공간을 확보해 주니 영아들이 놀이를 이어 가는데 있어 흐름이 끊기지 않고 놀이를 확장에 나갈 수 있게 변화하였다.
- 허용되는 것이 많아지니 놀이시간이 길어지고 또래와 경험을 놀이하며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10 남양주시 시립살롱어린이집 즐거운 배변놀이



놀이반 소개

영아마다 흥미를 보이는 놀이가 다양하며 개성이 뚜렷하다. 영아가 의사소통을 모두 언어로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언어 표현하려고 하며 놀이 속에서 일상 속 상황을 표현하며 놀이하는 하늬반입니다.

놀이의 시작

18개월 이후의 영아는 배변 훈련에 적합한 시기이므로 조금씩 배변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형님반 영아가 스스로 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화장실에 들어가 기저귀를 내려보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보기와 변기 물이 내려가는 모습에 높은 흥미를 보였다. 놀이를 통한 배변 훈련을 통해 대소변을 자발적으로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영아들의 배변 놀이가 시작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몸처럼 붙어있던 기저귀와 떨어지는 것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변 놀이를 통한 즐거움을 느끼고 배변 의사를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지지하려고 한다.

놀이의 과정

- 변기와 친해져요

손 닦기 시간에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는 변기에 앉아 보기도 하지만 변기에 앉기를 거부하는 영아에게 변기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교실 내에 아기 변기를 비치해 주었다. 또래 영아가 변기에 앉아 보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기를 거부하던 영아도 아기 변기에 자발적으로 앉아 보는 모습을 보이며 변기를 이용한 놀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아기인형을 변기에 앉히고 “응가~”라고 이야기하며 인형을 이용한 역할 놀이로 확장되었다. 영아의 사진을 이용한 <나의 배변 책>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지원해 주니 책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신기해하며 책을 수시로 보고 책 속의 변기에 앉아 있는 자신을 모방하여 아기 변기에 앉기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내 얼굴이 있는
<나의 배변 책>을 보며
배변에 흥미를 보임

- 응가와 놀이해요

배변 책에 있는 응가의 모습에 흥미를 보이고 응가에 대해 표현하며 아기 변기에 앉아 힘을 주는 모습이 관찰되어 응가를 이용한 놀이를 지원해 주었다. 뽕망치를 이용해 응가를 붙이고 떼기 놀이하며 “응가 해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코를 막으며 “냄새”라며 표현하기도 하였다. 응가를 이용해 놀이하던 영아가 바구니와 종이컵에 응가 그림을 여러 개 담아 들고 다니기를 즐겨 하였다. 응가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영아를 보며 ‘더 큰 응가를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커다란 응가 풍선을 지원하였다. 커다란 응가 풍선을 안아주기도 하고 손으로 치며 신체 놀이하기도 하는 영아이다. 바구니에 있는 응가 스티커를 가져와 커다란 응가 풍선에 붙여주며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한참을 놀이하던 영아가 바깥 놀이 시간에도 응가 풍선을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놀이터에 있는 시소에 응가 풍선을 태워주기도 하고 미끄럼틀을 함께 타기도 하며 친구와 함께 놀이하듯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뽕망치 이용해
응가 그림을 붙이고
떼며 놀이함



응가 풍선과 함께
시소를 타며 놀이함

- 재미있는 화장지 놀이

아기 변기에 아기인형을 앉혀 놀이 후 교사에게 화장지를 달라고 하여 아기인형의 엉덩이를 닦는 영아의 모습을 보고 아기 변기 옆에 티슈를 붙여 지원하였다. 변기에 앉아 놀이하던 영아가 티슈를 한 장씩 뽑는 놀이가 재미있는지 반복해서 티슈를 뽑아 여러 개의 티슈와 롤 화장지를 추가 지원하여 주었다. 자리에 앉아 롤 화장지를 한 칸씩 뜯어 바닥에 내려놓던 영아가 굴러가는 롤 화장지를 보고 바닥에 내려놓고 화장지를 굴러 풀기 시작하였다. 금세 풀린 화장지를 손으로 문쳐보기도 하고 머리 위로 뿌리며 대근육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영아가 크게 움직이며 놀이할 수 있도록 책상을 치워 공간을 확보하여 주었고 영아의 놀이 모습을 언어로 표현하여 주니 다른 영아도 또래 영아의 모습을 보며 모방하여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기에 앉아 응가 하듯
힘을 주고 티슈를 뽑아
엉덩이를 닦음



풀어진 화장지를 이용해
다양하게 놀이함

- 팬티를 입어요

배변 책 속에 보이는 팬티에 관심을 보이면서 아기인형을 이용해 놀이하던 영아가 인형의 팬티에 응가가 묻었다며 팬티를 벗기고 입히는 모습을 보고 다양한 팬티 찾기 놀이를 지원하여 주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팬티 그림을 보고 똑같은 팬티를 찾아 붙여 대응해 보기도 하고 팬티 그림 위에 쓰기 도구를 이용해 끼적이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팬티 그림을 영아의 몸에 대보며 거울을 보는 모습이 관찰되어 실제 팬티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 다양한 색의 팬티를 지원해 주었다. 팬티에 높은 흥미를 보이며 영아가 스스로 팬티를 입어보기도 하고 아기인형에게 팬티를 입히기도 하며 역할 놀이로 확장되었다. 역할 놀이 속에서 아기인형의 배변을 처리하는 모습을 능숙하게 모방하여 표현하며 영아 스스로 배변 학습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팬티를 찾아 짝을
지어보기도 하고
끼적이기도 함



팬티를 입고 벗어보며
놀이함

- 빨래 놀이

팬티를 이용해 놀이하던 영아가 팬티가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하며 바구니에 담은 모습에 빨래판과 빨랫줄을 지원해 주고 빨래판 사용법을 모르는 영아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모델링 보여주니 교사의 모습을 모방하여 빨래판에 대고 조물조물 빨래 놀이를 시작하였다. 빨랫줄에 팬티를 올리고 교사를 보며 두 손가락을 움직이며 집게를 달라고 표현하였다. 빨래집게를 지원해 주니 영아가 팬티 위에 집게를 여러 개 꽂아주며 집게의 수를 세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빨래 놀이에 높은 흥미를 보이는 영아가 다른 놀이하는 영아와 부딪치지 않도록 빨랫줄이 아닌 건조대로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작은 건조대로 지원하여 주니 영아가 수시로 빨래 놀이를 할 수 있었고 건조대 위에 팬티가 아닌 다른 것들도 올려서 자유롭게 놀이하며 건조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니건조대에 팬티와
수건을 올리며
빨래 놀이함

- 가정 연계

일상생활 대부분의 장소인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 보고 가정에 지원하였다.

영아의 사진을 이용한 <나의 배변 책>을 제작하여 가정에 지원하니 일과 중 부모님과 함께 배변 책을 보고 배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나 아기 변기에 앉아 배변하듯 힘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주셨다. 변기에 앉아 있는 영아의 모습을 합성하여 지원하니 부모님께서 화장실 변기 옆에 붙여 놓으시고 영아가 배변에 흥미를 갖도록 활용하였다고 하셨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붙여져 있는 영아의 모습을 보고 놀이처럼 즐겁게 변기에 앉아 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긍정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였으며 좋아하셨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배변 습관이니만큼 부모님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는 마음이 영아에게 중요하다>는 안내문을 보내드렸고 영아는 신뢰할 수 있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므로 부모의 화장실 사용 모델링을 보여주고 긍정적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변 훈련 tip을 안내해 드렸다. 가정에서 시도하기 어려웠던 배변 훈련을 어린이집과 연계하며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영아의 배변 성공의 경험도 할 수 있었다.



부모님과
<나의 배변 책>을 함께
보며 배변 이야기에 톺



가정에 있는 변기에 앉아
배변연습 해 톺

교사의 지원

물리적 자원

- 영아의 얼굴을 이용해 개별 배변 책을 직접 제작해 제공
- 응가 그림을 이용한 교구 (변기에 응가 붙이기, 뽕망치 놀이, 응가 풍선) 제공
- 다양한 화장지(티슈, 롤 화장지) 제공
- 영아가 좋아하는 캐릭터 팬티를 지원해서 영아가 선택할 기회를 제공
- 건조대, 빨래집게, 바구니 등의 빨래 놀잇감 제공
- 영아용 변기를 사용하여 변기에 친숙하게 도와줌

인적 자원

- 영아의 개인차를 관찰하고 기록하여 개별적 발달 상황에 따른 배변 놀이를 지원함
- 낮선 변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배변 성공 시 격려와 응원을 해줌
- 영아가 배변의 불편함을 표현할 때 긍정적 피드백을 주어 기저귀 떼기를 시도함

- 영아가 신뢰할 수 있는 교사의 행동을 모방함으로 화장실 사용 모델링을 보여주며 배변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줌
- 배뇨, 배변 신호를 인식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반복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줌

가정과의 연계

- 영아의 얼굴을 이용한 개별 배변 책을 가정에 제공해 부모님과 함께 보며 변기에 친숙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함
- 변기에 앉아 있는 영아의 모습을 합성해 가정에 제공해 주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는 마음이 영아에게 중요하다>는 부모교육 자료를 제공함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교사가 준비한 놀잇감과 자료를 이용한 정형화 되고 제한적인 놀이 위주였다.
- 주로 교사에게 의존하여 놀이가 이루어졌다.
- 같은 놀이가 일상처럼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놀이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자주 생겼다.
- 변기에 앉기를 거부하고 배변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

- 영아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졌고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놀잇감과 비구조적 재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놀이가 확장되었다.
- 같은 놀잇감이더라도 어제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구성하며 결과물을 완성하였다.
- 변기에 흥미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변기에 앉아 배변 모습을 모방하여 표현하였다.

교사의 변화

- 영아의 안전을 고려해 영아의 놀이를 충분히 지지하지 못했다.
- 교사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졌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영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시간과 기회를 주지 못했다.
- 주제에 맞는 놀이를 하도록 영아의 놀이에 개입하고 유도하였다.
- 일과 중에 배변 지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일괄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필요한 사항과 지원해 주어야 할 것들을 메모하게 되었고 영아의 놀이 흐름을 살피고 발문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 영아 중심의 배변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하게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다.
- 배변에 흥미를 보이며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아 입장에서 놀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영유아의 변화

- 영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교사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 놀이 중 필요한 놀잇감과 자료를 요청하는 모습은 많지 않았고 놀이에 금세 흥미를 잃는 모습이였다.

- 영아 스스로 탐색하고 놀이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 필요한 자원을 교사에게 요청하였고 충분한 놀이 지원을 통해 놀이가 확장되었고 놀이 시간이 지속되었다.
- 또래 영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놀이나 결과물에 높은 흥미를 보이며 서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 교실 내에 자리한 아기 변기를 통해 배변 연습을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11 양주시 공립꿈빛나래어린이집 부름, 부름 자동차놀이



우리반 소개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바른 뜻을 가진 해솔반은 1월생부터 10월생 까지 다양한 개월 수, 14명의 영아들이 두 담임체제로 구성되어 함께 지내고 있다. 여러 가지 블록을 활용한 놀이에 관심이 많아 놀이 중 블록을 사용하여 다양한 구성물 및 놀이공간을 만들어 놀이하기를 즐기고 있다. 벽돌블록을 활용하여 ‘내 집’이라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방해받지 않고 놀이를 하고 싶어 하던 모습에서 점차 공간을 넓혀가며 ‘우리 집, 성, 주차장, 찾길을 구성하고 함께 놀이하는 협동놀이의 모습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스스로 만든 놀이 공간 안으로 다양한 놀잇감을 가져가 병원놀이, 미용실, 아이스크림가게, 주차장 등 통합놀이도 이루어지고 있다.

놀이의 시작

여름놀이로 캠핑놀이를 하던 중 영아들이 벽면에 게시된 캠핑카 사진을 보고 캠핑카에 관심을 보였다. 캠핑카를 보고 여러 개의 벽돌블록을 나란히 줄지어 놓은 후 블록 위에 앉아 운전하는 흉내를 내며 “캠핑카 타고 가자.” 이야기를 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영아들과 함께 상자에 물감을 칠한 후 캠핑카를 만들어 놀이하였다.



캠핑카를 타고 놀이하던 중 “이거 버스야, 우리 버스 타고 키즈카페 가자. 기차 타고 가자.” 하며 캠핑카를 다양한 교통기관으로 변경하여 놀이를 하면서 자동차 놀이로 이어졌으며 일상생활 중 보고, 듣고, 경험해 본 교통기관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놀이하는 영아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놀이를 지원해 주면서 자동차 놀이가 더욱 확장되었다.



놀이의 과정



블록을 조립하여 다양한 모양의 자동차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벽돌블록으로 기차를 만들어 운전사, 손님 역할을 흉내 내며 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교사는 놀이를 관찰하며 영아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종이상자, 스티커, 도트물감, 색칠도구로 자동차를 만들고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영아들이 자유롭게 붙이고 끼적이며 꾸미기에 참여하였으며 완성된 자동차를 타고 놀이하기를 즐겼다.



“사고 발생, 사고 발생. 선생님,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를 고쳐야 해요.”

“내가 고쳐줄게.” 막대 블록을 가져와 자동차를 두드리며 고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기름이 없잖아! 밥을 먹어야 해.”라고 이야기하며 기름을 넣어 주는 표현을 하기도 하며 놀이를 하였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영아의 말에 주유기를 만들어 주유소 놀이공간을 지원해 주었다. 교사의 모델링이 없이도 자동차를 타고 와 노즐을 잡고 자동차를 살피며 주유구로 적합한 곳을 탐색 후 자연스럽게 주유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놀이를 하였다.



“선생님, 아빠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세차도 해요.” 이야기를 하고 물티슈 한 장을 가져와 자동차를 닦으며 세차하는 모습을 놀이로 표현하였다. “세차장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 “물!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영아들과 나눈 이야기를 반영하여 파티커튼을 이용해 주유소놀이 공간 옆에 물줄기를 붙여 세차장 놀이 공간을 지원해 주었다. “자동차가 더러워졌어. 목욕을 해야 해.”, “세차장에 가서 목욕하자.” 교실 앞 복도와 공동 놀이실 공간을 활용하여 주유소와 세차장 놀이에 필요한 공간을 넓게 지원해 주었더니 놀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정 연계활동으로 상자를 재활용한 자동차 만들기 놀이를 안내해 드렸다.

“선생님, 이거 아빠랑 같이 만들었어요.”, “엄마랑 같이 색칠했어요.”, “OO 이거 멋지다! 선생님 이거 타고 싶어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영아가 함께 만든 자동차를 원으로 가져와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놀이를 하기도 하고 친구와 서로 바꾸어 타면서 놀이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영아들 모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동차 극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탐색한 후 각자의 자동차를 타고 영화를 관람하는 자동차 극장 놀이로 확장하였다.

“선생님, 자동차 타고 영화 보니까 재미있어요.”

영아들이 자동차 극장 놀이를 너무 재미있어하였고 가정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소중히 다루며 놀이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캠핑카에 관심을 보이는 영아들에게 캠핑카를 만들어 놀이할 종이박스과 물감놀이도구를 지원하여 상자를 자유롭게 꾸며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아들이 상자에 들어가 운전하는 놀이를 즐겨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자동차 캐릭터 그림을 붙인 종이박스를 지원하였다.
- 스티커, 도트물감, 크레파스, 색연필 등 꾸미기 도구를 지원하여 영아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꾸며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블록으로 주유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 영아들에게 주유기를 만들어 주유소 놀이 공간을 지원 하였다.
- 물티슈로 자동차를 닦으며 세차놀이를 하는 영아들에게 파티커튼을 활용하여 구성된 세차장 놀이 환경과 공간을 지원하였다.

· 인적 자원

- 영아들이 구성된 놀이 공간과 놀이방법에 대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놀이를 격려하고 지지하였다.
- 놀이 중 영아들의 갈등 상황 시 영아들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고 존중해주며 원만한 놀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소감

놀이의 변화

컨설팅 전

- 자동차, 블록 등 기성품 놀잇감을 사용한 놀이가 대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 공동놀이실을 사용한 놀이 외에는 대부분 보육실 안에서만 놀이를 하였다.

컨설팅 후

- 교사가 영아들의 놀이를 관찰 후 관심과 흥미에 따른 놀이 및 자원을 지원해 주었더니 요구르트병으로 쌓기놀이, 상자와 우유팩으로 자동차 만들기 등 재활용품도 놀잇감으로 가지고 놀이를 하였다.
- 놀이에 따라 공간이 협소할 경우 교실 앞 복도를 활용하여 놀이공간을 지원해 주었더니 놀이가 더욱 재미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교사의 변화

- 교사가 계획한 놀이에 적합한 자원 및 환경과 놀잇감을 지원하며 계획한 대로 놀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 교구장과 교구 및 놀잇감을 영역을 구분하여 주제에 맞게 배치해 주었다.

- 연령과 개인차에 따른 놀이연구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 영아들의 관심에 따라 교사가 지원한 물리적, 인적자원의 놀이 환경에 영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며 영아 중심, 놀이 중심에 맞는 지원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영유아의 변화

- 놀잇감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보여 영아 간 갈등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동 놀이보다는 혼자 놀이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영아들도 있었다.

- 필요한 장난감과 도구가 있을 때 ‘나도 줄래? 나도 해도 돼?’와 같은 상호작용이 활동해지고 영아들의 주도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며 놀이 참여도가 높아졌다.
- 혼자 놀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영아들이 친구들의 놀이를 보며 긍정적인 모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12 양주시 미소어린이집 여름캠핑



놀이반 소개

정적인 활동보다는 주로 동적인 활동을 선호한다. 남아의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유아들이 많아 교실에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놀이의 시작

주말에 가족과 함께 놀러갔던 것을 떠올려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캠핑을 다녀온 유아가 많아 여름에 하는 캠핑에 대해 호기심을 보여 교실에 텐트를 제공해주었더니 더욱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여름캠핑 놀이가 시작되었음.

놀이의 과정

교사가 교실에 텐트를 제공해주자 유아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놀러와”라고 말하며 다른 유아들도 관심을 보였음. 텐트 속에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캠핑 음식을 만들어 텐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음. “나는 텐트에서 마시멜로우 먹을래”라고 말하며 마시멜로우 모형은 먹는 흉내를 내며 놀이가 진행됨.



텐트 안에서 놀던 유아가 “난 캠핑을 할 때 깜깜해서 별도 있었어”라고 말하며 교사는 검정비닐을 천장에 달아 밤하늘을 구성해주고, 유아가 그린 별을 검정비닐에 붙여주니 밤하늘의 별까지 구성되었음. 유아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와 깜깜한 밤 캠핑장이야! 별들이 반짝반짝해”라고 말하며 깜깜한 밤의 캠핑놀이를 즐겼음.



엄마, 아빠와 캠핑장에서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어본 유아가 친구들에게 “우리 마시멜로우 만들자”라고 말하며 점토를 이용하여 만들어보았음. “마시멜로우를 구워먹자”라고 말하며 교사가 화로를 제공해주었더니 유아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마시멜로우 꼬치를 빙글빙글 돌린 후 먹는 흉내를 내며 놀이함.



캠핑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교사가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자 유아는 그릴에 마시멜로우, 고기, 채소 등으로 요리하였음. 한 개의 그릴로 놀이하던 유아들이 다툼이 발생하여 교사가 의자로 만든 그릴을 추가로 제공해주었더니 다툼이 줄어들었고 분산되어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음.



“선생님 우리는 캠핑카가 없어요. 캠핑할 때 캠핑카도 타면 좋아요”라고 말하였다. “우리도 별하반 캠핑카를 만들자”라고 말하며 교사가 종이로 된 캠핑카를 제공해주자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며 별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고 색칠도구를 꾸며보았음. “주차는 캠핑장 주차장에 해야해”라고 말하며 교실 공간이 협소하여 복도에 주차선을 그려놓은 후 주차해주었음.



“나는 바다 캠핑장에서 놀았어”라고 말하는 유아에게 교사가 어떤 놀이가 재미있었는지 묻자 유아가 “낚시놀이가 정말 재밌었어요”라고 말하였음. 유아의 흥미를 반영하여 교실에 작은 낚시터를 구성해주었음. 유아들은 의자를 가져와 낚시놀이를 하는데 의자의 높이가 높아서 큰 와플 블럭으로 의자를 만들어 낚시놀이를 즐기는 유아이다.



교사의 지원

물리적 자원

- 넓은 공간 확보, 다양한 종류의 조명, 밤하늘 현수막, 낚시놀이감, 종이로 된 캠핑카, 캠핑테이블, 의자 등 다양한 캠핑도구

인적 자원

- 원장님의 지원, 동료선생님들의 아이디어

참여 소감

처음 공개수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놀이를 할지, 아이들의 흥미를 더욱 이끌어 내기 위해 환경구성을 어떻게 할지, 유아들의 다툼으로 돌발행동을 하지는 않을지 등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시작할 때 막막했습니다. 공개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유아들이 캠핑놀이에 관심을 보여 ‘여름캠핑’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유아들의 놀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구성과 놀이에 다양한 재료(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긴장해서였을까? 계획은 되어있으나, 고민만 하는 저를 보시고 원장님께서 유아의 놀이흐름과 유아의 놀이가 확장되어 질 수 있도록 피드백해주셔서 흥미를 발견하고 놀이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일 캠핑놀이가 한창인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놀이하는 모습도 보이고 손님이 오셔서 었는지 교사주위를 맴도는 유아들이 있어 당황스럽긴 했지만 의연한 모습으로 한명 한명 상호작용 해주어서 좋은 평가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 공개수업 준비까지 돌아보았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보다 수업 때마다 지도해주셨던 민혜자 교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놀이학습공동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신 한미화 원장님과 지도해주신 민혜자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컨설팅 전 놀이를 생각해보면 교사가 제시한 놀이가 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유아들이 원하는 진짜 놀이가 아닌 교사 중심이며 동적인 활동보다는 앉아서 하는 활동지 수업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항상 비슷한 놀이가 이루어진 것 같다.

캠핑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교사가 다양한 캠핑도구와 먹거리를 제공해주자 유아들이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을 세심히 관찰하여 갈등이 생길 때 놀잇감을 추가로 주어 긍정적으로 해결해나갔다. 유아들의 놀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구성이나 놀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교사의 변화

컨설팅 하기 전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어야 할지 잘 몰라서 어려웠다. 교사 주도가 익숙해서 유아중심으로 해야된다는 생각과 달리 매번 교사중심으로 방향을 가고 있었다.

컨설팅을 통하여 놀이에 대한 이해가 되었던 것 같다. 매 순간마다 유아들을 관찰하여 어떤 것에 흥미를 보이는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유아들이 진짜 원하는 놀이를 지원해주었고 지원을 해주었더니 유아들이 놀이에 몰입하며 놀이의 확장까지 되는 모습을 보였다.

영유아의 변화

컨설팅을 하기 전에는 유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기보다는 혼자서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가 놀잇감을 만지려고 하면 만지지 못하게 하며 “내꺼야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놀이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유아들이 함께 놀이하는 재미를 알고 서로 협력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전에는 갈등 상황이 많았는데 지금은 친구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같이 놀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인다.

13

연천군 백학꿈나무어린이집

알록달록 스카프 놀이!



놀이반 소개

• 반의 특징 (놀이 선호도, 발달 등)

- 우리 반은 2월생부터 12월생까지 총 9명으로 영아 두 반의 두 담임으로 구성된 1세 반이다. 다섯 명의 영아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즐거운 감정을 언어와 웃음으로 표현하며 또래와 같은 놀이를 하거나 모방 놀이를 즐기며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언어와 비언어로 표현한다. 공동놀이실과 다른 반에 가서 놀이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흥미 있는 놀이를 찾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놀이한다.
- 블록놀이, 소꿉놀이, 병원놀이, 공동놀이실에서 자동차 타기, 교사의 지원에 따른 새로운 놀이에 흥미를 보이며 주도적으로 몰입하여 놀이하기를 즐긴다.

놀이의 시작

• 놀이가 시작하게 된 배경 (영유아들이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 교실에 비치 되어 있는 스카프에 영아가 관심과 흥미를 보이며 놀이가 시작되었다.
- 스카프를 들고 망토처럼 둘러 놀이도 하고 머리에 쓰고 입고 깔고 놀이하다가 까꿍 놀이도 하고 싱크대에 서 손으로 조물조물 소꿉놀이를 하고 음악에 맞춰 스카프를 흔드는 모습도 보이며 즐겁게 놀이하였다.
- 다양한 스카프 색에 관심을 보이며 선호하는 색깔에 대해 탐색하였다.

놀이의 과정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 지원

1. 알록달록 입고 쓰고 스카프 점프 놀이



교구장에 비치된 바구니에서 스카프를 꺼내어 까꿍 놀이, 치마처럼 입어보기, 음악에 맞춰 스카프 흔들기, 솔처럼 둘러보기, 머리에 쓰고 놀이하기, 스카프 잡고 점프하기 등 즐겁게 놀이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영아들은 자신만의 표현 방법으로 다양한 스카프 놀이를 즐겁게 이어 나갔다.

2. 보들보들 살랑살랑 스카프 촉감 느끼기

영아의 놀이를 관찰한 후 교실에 끈을 매달아 주었더니 영아가 스카프를 끈에 걸쳐 놓고 걸어 보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는 영아를 도와 보자기 스카프를 걸어 주고, 보자기 스카프 지붕을 만들어 지원하였더니 영아들의 놀이가 즐겁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스카프 풍선놀이

보자기 스카프 지붕 아래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웃으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교사가 풍선에 바람을 넣어 제공하자 영아들은 풍선을 보자기 스카프 지붕 위에 올려 보기도 하고 풍선을 떨어뜨리려고 자리에서 높이 뛰어 머리로 헤딩하면서 즐겁게 놀이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4. 스카프 풍선 신체놀이

한 영아가 보자기 스카프 지붕 아래 누워 보자기 스카프 위에 있는 풍선을 발로 차는 모습을 보이자 그 모습을 본 영아들도 옆에 누워 풍선을 발로 차며 대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모방 놀이를 즐겼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놀이를 지원하였더니 더욱 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짐.)



5. 보글보글 스카프 소꿉놀이

영아가 소꿉놀이 중에 싱크대에서 스카프를 가지고 손으로 조물조물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빨래 놀이를 지원하였다.



6. 조물조물 미끌미끌 스카프 빨래 놀이

영아는 손에 닿는 비누 거품의 감촉을 느끼며 즐겼다.

영아는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대야에 세제를 뿌리고 손으로 저어 거품이 나자 빨래판에 보자기 스카프를 올려 조물조물 빨아보고 음악에 맞춰 신나게 발로 밟아 보면서 빨래 놀이를 즐겼다.



7. 스카프 널기

다양한 색깔의 스카프를 제공하여 빨래 놀이를 하면서 건조대에 널어보고 스카프 색깔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되었다. 교사는 색깔 이름을 알려주며 지원하였다. 빨래 놀이를 즐기며 물 놀이로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스카프를 이용한 놀이가 안전하게 이루어졌다.

놀이를 하루로 끝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영아가 선택한 놀이를 자유롭게 탐색하며 즐겼다.



교사의 지원

물리적 자원

-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스카프, 풍선, 음원
- 실외 공간에 그늘막, 물놀이장, 돛자리, 스카프, 대야, 빨래판, 건조대, 세제, 의자, 물놀이 튜브 제공하였다.

인적 자원

- 교사가 놀이하는 영아들을 관찰하며 영아가 필요로 할 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경청, 공감, 한계설정, 대안제시)해 주었다.
- 교사는 영아들이 실외놀이 시 미끄러지거나 다칠 우려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영아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 개별적인 배려를 제공하였다.

참여 소감

놀이의 변화

컨설팅 전

- 교실에 제공된 관심을 보이는 놀잇감 위주로 놀이하였다.
- 영아들이 새로운 주제에 관심은 보이나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하였다.

컨설팅 후

- 영아들이 흥미나 관심을 보이는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자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나름의 방법으로 탐색하며 즐겁고 편안하게 놀이 하였다.
- 영아들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놀이를 (빨래 놀이, 색깔 스카프, 비누 거품 세제, 물놀이 등) 제공하여주자 영아들이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확장된 놀이를 즐겼다.
- 스카프 놀이에서 빨래놀이, 풍선놀이, 물놀이로 변화하는 놀이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교사의 변화

- 영아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영아의 놀이에 참여하여 같이 즐겼다.
- 주로 구조적인 놀잇감을 제공하였다.

- 영아의 놀이를 관심 있게 관찰하고 상황에 적절한 개입에 대한 고민과 영아의 주도적 놀이 지원과 놀이 해석에 변화를 주었다.
- 영아들이 충분히 놀이하고 싶을 때까지 즐겁고 자유롭게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영유아의 변화

- 영아들이 좋아하는 반복적인 블록 놀이나, 뛰어다니는 모방적인 놀이가 주로 이루어졌다.

- 영아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놀잇감을 탐색하며 공간과 놀이 방법을 달리하며 놀이를 확장해 나갔다.
- 놀이 속에서 영아지만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들이 관찰되었다.

14

연천군 전곡어린이집

무엇이든 변신하는 상자!



놀이반 소개

• 반의 특징 (놀이 선호도, 발달 등)

햇살반은 남아 6명 여아 7명으로 평소 비구조적인 미술재료를 이용하여 만들기를 하는 것이나 동적으로 놀이하는 것에 흥미와 관심이 높다. 특히 매일 어린이집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놀이하는 것을 선호한다.

놀이의 시작

• 놀이가 시작하게 된 배경 (영유아들이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종이컵, 컵 홀더, 종이백, 과자 상자 등 종이 재활용품으로 미술 놀이를 하는 것에 흥미가 높아져 있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크기의 택배 상자가 생기자 상자를 이용하여 놀이하기 시작하였다.

놀이의 과정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 지원

1. 상자가 교실에 나타났어요.

햇살반 친구들이 교실에 나타난 다양한 크기의 상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난 이거 할래!” “난 더 큰 거 할래!” 한 명 두 명 놀이하고 싶은 상자의 크기를 선택하여 놀이를 하였다.



2. 상자에 물건을 넣어볼까?

상자에 들어가 볼까?

“우리 이거 넣어보자!” 햇살반 친구들은 상자에 장난감을 가득 넣어보기도 하고, “나도 들어갈래!” 상자 속에 직접 들어 가보기도 하였다.



3. 접고! 붙이고! 뜯어주세요!

이번에는 상자를 이용한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한 친구가 가위로 상자를 오려보는데 상자가 두꺼워 잘 오려지지 않자 “선생님 여기 잘라주세요!”라며 부탁하였고 교사가 도와주자 다른 유아들도 두꺼운 종이 오리기를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선생님, 여기는 길게 뚫어주고, 여기는 동그랗게 뚫어주세요!”, “선생님 여기가 자꾸 떨어져요” 라고 말하며 놀이가 진행되는 과정을 알리기도 하였다. 작은 테이프로 상자를 접어 붙이던 한 유아가 자꾸 테이프가 떨어진다며 더 큰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했고, 두꺼운 상자 테이프를 지원해주자 상자 테이프로 상자를 여기저기 붙이기 시작하였다.



4. 상자의 다양한 변신!

여기저기 오리고, 테이프를 붙여 상자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신하였다. 기차로 변신하기도 하고, 끈을 달아 썰매로 변신하기도 하였다.



5. 동전을 넣으면 새 돈이 나와요!

가장 큰 상자를 고른 한 유아는 구멍 두 개를 뚫어 달라고 교사에게 부탁했고, 구멍을 뚫어주자 상자 속에 들어가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하며 놀이 하였다. 그러다 다른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고, 친구들은 상자 속으로 돈 장난감을 넣기 시작하였다. 상자 밖에 있는 친구들은 구멍으로 돈을 넣고, 상자 안에 있는 친구는 구멍 밖으로 다시 돈을 빼며 놀이를 하였다. “선생님, 여기 동전을 넣으면 새 돈이 나와요!”라며 낡은 동전을 넣으면 새 돈으로 바꾸어주는 기계가 만들어졌다.



6. 다음 날도 계속되는 상자의 변신!

다음 날에도 상자 놀이는 계속되었다. 어제 썰매로 변신했던 상자에 동물 가족을 태우고는 “오늘은 동물 썰매예요!”라고 말한다. 어제는 사람만 타는 썰매였지만 오늘은 아기 동물들이 타는 썰매로 변신하며 놀이가 확장되었다.



7. 캠핑장으로 변신!

그다음 날 상자가 조금씩 찢어져서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햇살반 유아들은 펼쳐진 상자를 모아 바닥에 깔고, 주변에 세우며 놀이가 확장되면서 “여기는 캠핑장이야!” 라고 말하며 찢어진 상자가 이전에 캠핑을 갔던 경험들이 캠핑장 놀이로 확장되었고 다양한 놀이감을 가지고 캠핑장에 들어와 놀이가 이루어졌다.



8. 구겨진 상자를 오리니 그림판으로 변신!

상자가 너덜해지고, 더 이상 놀이할 수 없게 되자 상자를 작게 잘라 미술영역에 지원해주었다. 유아들은 상자 위에 매직으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며 미술 놀이를 하기 시작하였다. “선생님 이거 편지예요!” “종이가 두꺼워서 안 망가져!” 다른 얇은 종이는 구겨지지만 구겨지지 않는 튼튼한 상자 종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미술 놀이가 이루어졌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종이 재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상자 제공
- 끈, 상자 테이프 제공

■ 인적 자원

- 유아들의 놀이 관찰, 적절한 질문 및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 확장 지원
- 유아들의 요청에 따라 두꺼운 상자에 구멍을 뚫거나 자르는 도움 제공
- 흥미를 가지는 유아들의 공동놀이참여 기회 제공
- 놀이 참여 (참여자, 지지자 역할)

참여 소감

놀이의 변화

유아들의 흥미에 관심을 가지고 놀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대부분 주간교육계획안 주제에 맞추어 미리 교사 주도식 놀이 환경 및 지원이 이루어져 유아들의 흥미가 지속되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유아들의 흥미와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따른 놀이 주제 선정 및 인적·물리적 지원을 해 주었고, 교사가 이끌어 낸 놀이보다 유아들의 흥미에 기초 된 놀이의 지속성과 놀이 확장의 모습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교사의 변화

유아들의 흥미에 기초하여 놀이 확장을 더욱 이끌어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 유아들의 지원요청이 이 있기 전에 놀이 상호작용에 개입하여 알아내고자 하였다.

유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다려 주니 교사의 즉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유아들이 새로운 방법의 창의적인 놀이가 이루어지는 걸 지켜보며 교사의 기다림과 충분한 놀이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영유아의 변화

교사가 구성해놓은 주제에 맞춰진 환경에서 놀이하며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요?”라는 질문이 많았다.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한 놀이 주제가 이루어지니 유아 스스로 놀이를 확장하며 놀이에 몰입하여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15

의정부시 공립빛누리어린이집

우리처럼 놀이해보! (박스로 놀이)



놀이반 소개

빛누리 어린이집의 막내 도담반 친구들은 만 0세 연령의 여자친구 2명, 남자친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급입니다. 다양한 놀이 자료에 관심이 많고 다방면에서 흥미를 느끼는 만큼 소근육을 사용하여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A그룹, 활동량이 많아 대근육을 이용하여 놀이하며 신체 놀이를 선호하는 B그룹으로 나뉘어 놀이가 진행될 때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영아들끼리의 관심도와 친밀감이 높은 편이라 서로의 놀이를 관찰하고 모방하여 조금은 서툰 협동 놀이를 즐기기도 하는 사랑스러운 친구들이랍니다.



놀이의 시작

평소 쇼핑백과 가방 속에 놀잇감을 넣고 꺼내며 놀이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 도담반 친구들이에요. 또한 놀잇감 바구니를 꺼내어 놀잇감을 쏟아 빈 바구니 속에 들어가보기도 하고 볼풀공을 바구니 속에 넣고 꺼내는 것을 반복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다양한 모양의 통과 종이 상자를 제공해주며 도담반 친구들의 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선생님 가방 속에 넣어줘~



내 바구니 어때?



놀이의 과정

다양한 모양의 종이 상자를 제공해주시 두드리고, 만져보며 자유롭게 탐색 하였어요.

종이 상자와 친숙해진 친구들은 머리에 "쑹!" 넣어보기도 하고, 상자에 들어가보며 신체를 이용하여 놀이하기 시작하였어요.

내 마음대로 상자 놀이해요
활동적으로 놀이하는 것이 좋아요!

'까꿍~' 종이 상자의 날개를 닫아주고 열어주니 날개에 흥미가 생긴 영아들은 상자 안으로 들어가 친구와 함께하는 까꿍 상자놀이로 연계되었어요.



상자에 들어간 도담반 친구들이 팔을 뻗어 운전하는 시늉을 하고, "부웅~" 하고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고 핸들놀잇감을 제공해주었더니 핸들을 돌리며 자동차 놀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책, 인형 등 다양한 놀잇감을 종이 상자로 가져와 넣어보고 다시 꺼내어보며 놀이하기도 하였어요.

내 마음대로 상자 놀이해요
정적인 놀이가 좋아요!

아~ 먹어봐!



컵에 과일들
담아보자~



교사의 관찰과 고민

- 개월 수가 같아도 발달의 개인차가 많이 보이는 연령인 도담반을 위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다방면에서의 흥미를 보이는 도담반 친구들의 개별 흥미를 고려한 지원은 무엇일까?

교사의 지원

아직 대근육을 사용한 신체놀이보다는 소근육을 사용하여 탐색하는 것을 즐기는 친구들과 큰 종이 상자와 친숙해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상자와 천천히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모양의 통을 제공 해주었어요. 식기 놀잇감을 함께 사용하여 "아~" 하며 냅뎀 식사 놀이도 하고, 놀잇감을 넣어보며 놀이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사의 지원

종이 상자에 붙어있던 테이프를 발견한 친구가 손톱으로 테이프를 긁으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도 테이프를 잡아당겨 뜯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 여러가지 테이프를 제공해 주었더니 상자 이곳 저곳에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보고 테이프를 신체에 붙여보며 놀이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사의 지원

- 상자에 물 자국이 남는 형상에 흥미를 느끼는 영아들이 물에 젖는 상자의 특성으로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손으로 탐색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영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을까?

손의 물기를 상자에 문질러보며 자국이 남는 형상을 관찰하고 즐거워하며 "물에 젖는 상자의 특성으로 놀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물로 끼적여볼 수 있는 워터펜과 수분이 있는 다양한 채소로 도장을 찍으며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어요. 워터펜을 눌러 물로 선을 그으며 상자를 적셔보고, 채소를 꺾 꺾 찍어 생기는 물 도장으로 놀이하는 모습이었어요. 상자가 젖고 마르는 형상을 보고 흥미를 느끼며 놀이가 지속되었답니다. 동적인 놀이를 즐기는 친구들은 오이를 상자에 두드리며 소리에 흥미를 느끼고, 두 손으로 동동! 상자를 내리치고 소리를 내며 밴드를 결성하여 놀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리적 자원

-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테이프로 마감 처리 후 다양한 모양의 상자 제공
- 상자 속에서 운전하는 시늉을 하며 놀이하는 모습에 핸들 놀잇감 제공
- 물에 젖는 상자의 특성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통 제공
- 다양한 종류의 테이프 제공

인적 자원

- 영아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변형하고 넓혀 지원
- 영아들의 흥미에 따른 놀이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찰을 통한 놀이 지원
- 동적인 놀이를 즐기는 영아, 정적인 놀이를 즐기는 도담반 영아들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놀이 지원
- 폭 넓은 놀이로의 연계를 위한 적절한 반응과 지속적인 격려를 통한 언어적 지원

참여 소감

놀이의 변화

컨설팅 전

미리 계획했었던 주제 위주로 놀이가 진행되어 영아주도 보다는 교사 주도적인 놀이가 진행될 때가 있었음.

컨설팅 후

계획에 한해서 놀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영아들의 흥미를 관찰한 후 관찰을 토대로 놀이가 이어질 수 있어서 놀이가 오래 지속되고 확장되어 나감.

교사의 변화

영아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놀이 주제에 갇힌 자료를 제공함.
놀잇감을 제공할 때 영아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물을 정형화시키고 꾸며내어 제공함.

컨설팅 후 개별놀이를 즐기는 도담반 영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놀이를 준비할 수 있게 됨.
비구조적인 놀잇감을 제공하여 영아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많아짐.

영유아의 변화

놀이 중 교사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며 흥미를 보이는 시간이 짧고 놀이가 단절되는 모습이 보였음.

개별 흥미도에 따른 놀이가 깊게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놀이에 참여를 하는 모습이 많아짐.



16 의정부시 은행어린이집 폼폼이 세상 속으로~!



놀이반 소개

초록풀잎반은 여아 6명과 남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한 반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도전에 흥미를 느끼고, 예술적인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쳐보는 것을 즐깁니다.



놀이의 시작

플로깅데이를 진행하며 부모님과 함께 분리배출을 한 후, 교실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해 분리수거 놀이를 하였습니다. 낚싯대를 이용해 바다 속 쓰레기를 건지며 놀던 중, 한 유아가 “난 수영할 거야”하고 폼폼이를 몸으로 탐색하며 폼폼이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이의 과정



폼폼이 속에 풍덩 빠져 수영장 놀이, 목욕탕 놀이도 하고 손가락에 끼우기도 하며 몸으로 탐색놀이를 하였습니다.



리본 끈, 모루, 빨대에 폼폼이를 끼워 목걸이, 팔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끼우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교사가 벽면에 끼우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끈을 제공해주자 품퐁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며 **품퐁이 모빌**을 만들어 놀이하였습니다.

작은 플라스틱에 품퐁이를 넣은 후, 빠지지 않자 당황해하여 다양한 재활용품을 제공해주자 **품퐁이 옮기기**를 하였습니다.



품퐁이를 이용해 요리도 하고 “빙수 사세요~”하고 외치며 빙수 놀이도 하고 빨대 가득한 품퐁이 음료수도 마시고 집게를 이용해 품퐁이 음식도 맛보며 다양한 **역할극 놀이**를 하였습니다.



나무막대에 품퐁이를 끼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길이 비교도 하고 매직으로 품퐁이를 색칠하여 **품퐁이 아이스크림 놀이**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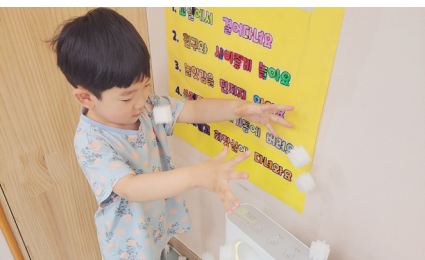
어항 도안을 제공해주자 품퐁이를 붙인 후, 눈, 입, 꼬리를 꾸미며 **품퐁이 물고기**를 만들어 놀이하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안 붙어요?”하고 물어 까슬이를 붙인 품퐁이를 제공해주자 품퐁이를 칠판에 붙이며 “저 이걸로 꽃 그릴 거예요~”하고 **품퐁이 그림 놀이**를 하였습니다.



여름 날씨 중 장마에 대해 알아본 후, 에그톡 물감을 이용해 빗방울을 표현하던 중, 한 유아가 품퐁이에 물감을 묻혀 찍어보더니 **품퐁이 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며 놀이하였습니다.

싱크대 위에 품퐁이를 잔뜩 쌓아 놀이하던 중 공기청정기 위에 떨어진 품퐁이 1개가 멀리 날아가자 “어?”하고 양손 가득 품퐁이를 안고 공기청정기 위에 짹~뿌려 날아가는 품퐁이를 관찰하며 “와~ 눈 온다!”하고 **바람에 품퐁이 날리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교사가 빈 상자를 제공해주자 “집이야~”하고 표현하며 상자 속에 들어가 놀이하던 유아들은 상자 겉면에 양면테이프로 폼폼이를 붙여서 **얼음 집**을 만들어 놀이하였습니다.

“내가 눈 오게 해 줄게!”하고 이야기하며 플라스틱 통 가득 폼폼이를 담아 쏟으며 놀이하기도 하고, 빨대, 모루, 나무 막대를 꽂아 **아이스크림 집**을 만들어 놀이하였습니다.



폼폼이 팔찌를 휴지걸이 위에 꽂아보더니 휴지를 뺀 후, 폼폼이 팔찌를 던져 **폼폼이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교사가 책상을 뒤집어 제시해주자 폼폼이 팔찌를 끼우기도 하고, 폼폼이 목걸이를 던져 **폼폼이 고리 던지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은행 올림픽을 진행하며 축구에 대해 관심을 보여 유아들의 사진으로 만든 축구선수 도안을 코팅한 후, 다리 쪽에 구멍을 뚫어 제시해주자 유아들은 폼폼이에 그림을 그려 폼폼이 축구공을 만들어 **폼폼이 손가락 축구 놀이**를 하였습니다.

폼폼이 여러 개를 모아 테이프로 감싸 폼폼이 공을 만들어 **공놀이**를 하였습니다.

은행 올림픽을 진행하며 볼링을 알게 된 유아들은 책상 위에 플라스틱 병을 세운 후, 폼폼이 공을 굴려 **폼폼이 볼링 놀이**를 하였습니다.



교사의 지원

물리적 자원

- 김장매트, 리본 끈, 모루, 테이프, 종이컵, 플라스틱 통, 빨대, 나무 막대, 매직, 어항 도안, 에그톡 물감, 빈 상자, 양면테이프, 까슬이, 축구선수 도안, 색 테이프

인적 자원

- 유아들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제공해주었습니다.
- 교사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아와 함께 놀며 유아가 놀이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비언어적, 언어적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유아들이 자신감을 갖고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습니다.
- 역할극 놀이를 통해 유아들이 함께 놀이하도록 유도하여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유아 - 유아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 하여 지원해주었습니다.
- 각 유아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맞춘 **개별화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습니다.
- 교사는 유아에게 **질문**을 통해 유아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구조적 놀잇감의 의존도가 높고 정형화된 놀이를 하다 보니 놀이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고 유아들의 흥미가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놀잇감을 스스로 만들어 놀이하고 놀이의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사의 변화

교사가 놀이를 계획하고 주도하여 이끌 때가 많았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안돼”, “위험해”라고 이야기하며 놀이를 제한하곤 하였습니다.

원내 자체적인 교사 공동체 연구 활동을 진행하여 놀이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였고,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다려주며 유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유아의 변화

각 유아가 놀이 영역에 따라 개별적인 놀이를 하였고 놀이 지속시간이 짧았습니다.

유아가 놀이를 스스로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며 놀이의 흐름에 따라 확장되며 지속적인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 파주시 시립e편한세상어린이집 끈을 이용한 끊임없는 놀이



놀이반 소개

• 반의 특징 (놀이 선호도, 발달 등)

정원 14명, 현원 14명으로 남아 8명, 여아 6명으로 21년생 영아가 13명 상위반 편성이 된 영아 1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시기 영아들답게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탐색을 통한 놀이의 재발견을 이루어내고 있다.

놀이의 시작

• 놀이가 시작하게 된 배경 (영유아들이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지난 9월 작품전시회를 진행하게 되면서 영아들이 다양한 미술재료, 미술도구 등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색, 면, 조형물 등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놀이를 통한 작품을 만들기 내기 시작하였다. 이후 작품전시회 재료로 제공하였던 <털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털실을 풍부하게 가지고 놀이하고 싶다는 의견을 들어 자연스럽게 재료를 제공하고 털실, 끈 놀이가 시작되었다.

놀이의 과정

•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 지원

1. 털실의 형태 탐색하기

털실의 특징을 느끼며 1) 끈이 짙 묶일 수 있다. 2) 까칠까칠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다 3)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4)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며 자연스레 털실을 이용해 머리카락을 만들거나 스파게티를 만드는 등 엉켜있는 털실을 이용한 놀이가 시작되었다. 엉킨 털실을 이용하여도 충분히 멋진 놀이가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본격적인 다양한 끈의 탐색

털실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머리카락을 표현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된 영아들을 위해 다양한 끈을 추가로 제공하며 리본끈, 지끈, 마끈 등 다양한 길이와 너비를 가진 끈을 제공해주며 다양한 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후 리본끈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한 영아들을 보니 머리에 묶기, 팔찌 만들기, 발목에 발레슈즈처럼 표현하기 등을 보여주며 스스로 사전경험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3.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교구에 끈 연결해보기

점차 교실에 있는 끈들을 끈 자체만으로 놀이하는 것이 아닌 끈에 무언가 엮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시작하고 교실에 있는 자석블록 사이에 끈을 끼워넣으려고 노력하며 영아 스스로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시도한 결과 자석과 자석사이에 끈을 끼워 교사로서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였다. 끈이 무언가 끌어당기는 힘을 자석을 통해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영아들이었다.



4. 작은 자동차 움직이기

교실에 있는 물건에 끈을 연결하던 영아는 교실에 있는 자동차를 굴러갈 수 있도록 자동차 바퀴나 몸통 등에 끼워보며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는 무언가에 새로운 힘을 제공하여 평소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모습을 드러내었다. 자동차에 가장 안정적으로 묶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교사에게 묶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교사가 해당 부분에 묶어주었다. 영아들은 자동차를 끌어보기 시작하고 교실의 여러공간에서 끌어당기다 보니 주변 다른 친구들의 놀이에 피해가 생기는 상황들이 있기 시작하고 갈등상황이 늘어나는 것을 본 교사는 이러한 부분을 축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끌어당길 수 있는 직선, 곡선, 점선모양의 색테이프를 바닥에 붙여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선을 탐색하며 자동차를 끌어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울퉁불퉁한 면을 함께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롤골판지를 바닥에 부착하여 끌어당기는 자동차가 어디서 움직이는 것이 더 즐거운지 영아가 스스로 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5. 줄넘기를 이용한 큰 자동차 움직이기

바퀴가 달린 어떠한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던 영아들이 교사가 제공한 줄넘기를 이용하여 교실에서의 놀이처럼 자동차에 묶어 놀이를 시작하고 자동차를 당길 수 있도록 끈을 U자 모양으로 만들어 자동차 손잡이에 걸어 끌어보기 시작하였다. 놀이 중 끈이 자꾸 손잡이에서 빠지는 것을 불편하다고 여긴 영아는 한참을 고민 후 끈을 J 모양으로 만들며 고리 부분을 손잡이에 돌돌 말아보았는데, 자신이 한두번 끈을 말아본 것과 10번 끈을 말아본 것 중 어떤 것이 더 튼튼하게 자동차에 엮이는데에 대해 알게되어 “10번정도 돌돌돌- 묶어봐!”라고 말하며 자신이 놀이를 통해 얻은 지식을 또래친구들에게 권해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6. 자연물과 끈의 만남

바깥놀이 중 발견한 솔방울에 관심을 가지며 옷이나 모자에 솔방울을 모아 교사에게 다가와 교실로 가져가고 싶어하고, 교사는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영아들이 가져온 솔방울을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말린 뒤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평상시 점토에 관심이 많던 영아들이 끈에 점토를 붙이는 모습을 보며 솔방울을 묶어볼 것을 권해보니 지난 자동차에 줄넘기를 엮어 놀이했던 기억을 떠올린 한 영아가 끈을 솔방울에 돌돌 말아 빠지지 않도록 탄탄하게 만들어 보며 직전 놀이의 경험을 새로운 놀이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교사는 영아들이 엮은 끈을 교실 문에 매달아 자연물 모빌로 완성 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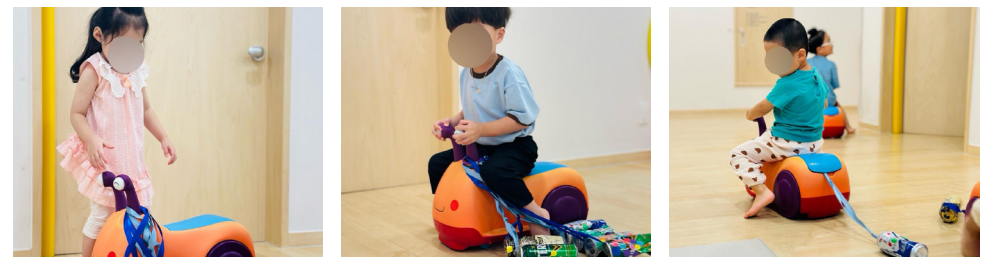
7. 끈과 캔음료병의 결합

바깥놀이 시간 영아들이 끈으로 끌고 다닐만한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하던 교사는 어릴적 많이 놀았던 캔놀이를 생각해내며 키즈노트를 통해 가정연계물품을 안내하였다. 부모님들께선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진 캔을 제공해주고 우선 캔으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았다. 영아들은 캔을 눌러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는 등 캔 자체에 관심을 갖는 듯 보이다 주변에 함께 제공한 끈을 캔에 묶어보고 싶어 하는 영아가 1명생겨 교사가 테이프를 떼어 제공하였고 테이프를 이용해 캔에 끈을 붙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스스로 붙여보기도 하였다. 이후 캔이 ‘탕! 탕!’ 소리를 내며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을 본 영아가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1명의 영아의 놀이를 관찰하던 주변 친구들이 함께 다가와 교사가 1차적으로 의도하였던 놀이의 모습대로 끈과 캔을 탐색하고 놀이하고자 무언가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였다.



8. 끈 + 캔 + 자동차의 결합

교사가 1차적으로 의도한 놀이가 끝나고 당일 바깥놀이를 나가보고자 하였지만 우천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공동놀이실과 복도를 이용하여 캔 놀이를 시작하고 영아들은 빠른 걸음으로 캔을 끌고 다니며 ‘탕! 탕!’ 소리를 내며 즐겁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공동놀이실에 있는 자동차에 캔을 다양한 방법으로 걸어보고 자동차에 탑승하여 움직이면서 자동차에 타고 나서도 “탕! 탕!” 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며 2차적인 다른 놀이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교사가 의도하지 않아도 영아들이 새로운 발현적 놀이를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9. 끈 + 캔 + 종이블록 = 낚시놀이

하루는 교실에서 종이블록을 동그라미 모양으로 만들어 무언가 구성하려던 영아의 옆에 다른 영아가 다가와 캔놀이 도구를 가지고 다가가며 ”여긴 바다야! 바다에서 물고기 잡자!“라고 말하며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블록 안에 캔놀이 도구를 가져가며 낚시놀이를 흥내내기도 하였다. 캔과 끈을 이용한 3차 놀이가 시작되며 영아들만의 새로운 놀이를 계속해서 확장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0. 꼬리잡기 놀이의 새로운 발견, 끈의 다채로움

끈 놀이에 대한 흥미가 이어지며 공동놀이실에서 끈을 이용해 “이건 돼지꼬리야.” “이건 말 꼬리야~”라고 말하며 꼬리를 만드는 영아들을 발견하여 원내에 구비되어 있던 <꼬리잡기> 교구를 제공하며 영아들의 놀이를 관찰하였다. 영아들은 꼬리잡기 교구의 특성부터 살피기 시작하며 벨크로가 부착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붙였다 떼어졌다 하며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음에 대해 깨닫게 된 후, 허리에 묶는 용도의 끈에 꼬리가 1개 아닌 다양한 색깔과 끈의 개수를 붙이며 ‘치마 만들 거야. 그리고 빨래 해야지, 여기도 넣어둘꺼야!’라고 하며 극놀이로 전개하며 놀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아의 모습을 보며 교사는 <홀라춤>을 떠올리게 되고 이후 함께하는 <멋진 홀라춤 추가>를 하며 끈 놀이만을 중심으로 한 놀이는 서서히 마무리 하게 되었다.



교사의 지원

물리적 자원

- 다양한 끈 종류 (길이와 너비, 재질이 다른 리본끈 / 털실 / 지끈 / 마끈 / 줄넘기등)
- 꼬리잡기 신체교구
- 실리콘 풀
- 데코아트 점토
- 교실 내 블록 (자석블록, 라이트할로우블록 등)
- 그리기 도구, 접착 도구(테이프, 실리콘 풀, 목공풀) 등
- 아스테이지 2마 이상

인적 자원

- 가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끈, 빈 캔, 놀이이야기를 지원 받음.
- 영아들의 놀이를 벽면에 부착하여 놀이에 대한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5세반과 연계하여 줄넘기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만의 줄넘기 놀이를 지원함.
- 영아들의 작품을 벽면과 천장에 게시하여 놀이의 확장을 지원함.
- 접착력이 필요한 도구가 필요한 경우(테이프 이용) 시 안전사고 염려로 교사가 테이프를 잘라 영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다양한 끈을 이용한 단편적인 놀이가 이루어졌다.

놀이가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넓게 바꾸어줄 수 있도록 벽면 위주로 교구장을 붙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교사의 변화

끈 놀이 시 영아들의 안전사고를 많이 걱정하였고 짧은 끈을 위주로 제공하고 영아들의 놀이에 제한을 두며 제공하였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교사의 강박을 제거하기엔 어려웠으나 대신 교실 환경을 안전하게 제공하며 교실 모서리마다 보호대 설치, 끈의 길이 길고 짧게 다양하게 제공하며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영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였다.

영유아의 변화

교사의 의도가 섞인 놀이들이 지원되면서 교사의 의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놀이가 지속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아들이 원하는 끈놀이는 무엇인지 교사 스스로도 끊임없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의 의도는 뒤로하고 영아들의 우선적인 놀이의 발현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